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증권회사 단기유동성 비율 100% 이상 유지해야

-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「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」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.
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, 최근 증권회사들의 콜머니 차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.
 - 또한, 금감원의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결과, 콜차입 비중이 높은 일부 증권회사는 일시적 유동성 경색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따라서 「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」 마련을 통해 유동성리스크 관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함.

- 내년부터는 증권회사들은 단기 유동성비율을 100%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, 또한 오는 10월부터 일별 콜머니 한도도 자기자본 대비 100% 이내로 제한됨.
 - 증권회사는 지급보증이나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현금흐름을 측정하고 단기 유동성비율을 100% 이상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·운영해야 함.
 - 각 회사의 이사회는 경영진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전략과 절차 등을 승인하고 유동성 현황과 위기상황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 최종 책임을 져야 함.
 - 최소 반기별 한 차례 이상 유동성 상황을 분석하고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신규 영업이나 신상품 출시도 사전 검토해야 함.
 - 유동성 위기상황 분석 결과를 반영해 위기상황에 대한 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명시한 '비상자금조달계획'을 수립해야 함.
 - 10월부터 일별 콜머니 한도도 자기자본 대비 100% 이내에서 자체 설정 운영해야 하나 일부 콜 차입 규모가 과도한 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 6개월까지 부득이한 경우 100% 초과를 허용함.

- 금융투자회사가 그 동안 시장리스크와 신용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잘 해온 만큼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통해 회사 자체의 건전한 영업 발전 및 금융시장 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(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도입 등, 금감원 등, 8/18)